

조선 후기 지식인의
‘중국 동국기사류(東國記事類) 서목’ 편찬*
- 이덕무(李德懋) · 한치운(韓致濬) · 이규경(李圭景)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려화**

- I. 서론
- II. 조선에서 편찬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
- III.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의 특징
- IV. 타자인식과 한국학 연원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 지식인이 편찬한 세 개의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덕무(李德懋)의 <화인기동사(華人記東事)>, 한치운(韓致濬)의 <동국기사(東國記事)>, 이규경(李圭景)의 <중원기동사(中原記東事)>에는 역대 중국 지식인들이 편찬한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를 수록하였다. 이덕무의 <화인기동사>에는 22종 서적을 수록하였고 한치운의 <동국기사>에는 59종 서적을 수집하였다. 이규경의 <중원기동사>에는 23종 서적을 수록하였으며 이덕무의 서목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서목에 수록한 문헌을 다시 세분하면 한반도 국기(國記), 행정록(行程錄)·견문록(見聞錄), 한반도 전제(典製) 관련 저서, 군사지기(軍事志記), 시문집, 역사서 등 여섯 종류가 확인된다. 그리고 기술(記述) 체계를

* 이 논문은 2023년 제16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중국 광둥외어의무대학 남극상대학 부교수

보면, 이덕무의 서목은 조선 중심적인 기술 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치윤과 이규경의 서목은 조선 중심적 기술 체계를 넘어서서 자국에 대한 인식을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서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객관적 기술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세 개의 서목을 통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자국에 대한 객관적 기술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조선 지식인들이 작성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은 그들의 자타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중국의 한국학 성립의 연원을 탐구하게 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하겠다.

핵심어: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 <華人記東事>, <中原記東事>, <東國記事>, 자타인식, 한국학

1. 서론

중국 사서에는 일찍부터 한반도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 특히 관찬사서(官撰史書)에 기록된 동이(東夷), 삼한(三韓),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관한 기사들은 한반도를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 활용해왔다. 사서에 한반도 관련 기사를 수록했던 것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한 정사(正史)의 기록 전통인데 『사기(史記)』 속의 <조선열전(朝鮮列傳)>, 『한서(漢書)』 속의 <조선전(朝鮮傳)>, 『후한서(後漢書)』 속의 <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의 <동이전(東夷傳)>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글들이다. 이러한 기록 전통은 『진서(晉書)』,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속의 <동이열전>을 거쳐 『송사(宋史)』, 『원사(元史)』 속의 <외국열전(外國列傳)>에 이어 『명사(明史)』와 『청사고(淸史稿)』 속의 <조선열전>까지 꾸준히 계승되었다.¹⁾

중국 정사 속의 한반도 관련 기록들은 지식인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는 개인 저작에서 점차 한반도에 관한 정보가

1)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中國正史朝鮮傳』,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98.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또 한반도에 관한 전문 저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隋)나라 때 중국 지식인의 한반도에 관한 전문 저서가 처음으로 편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이(崔頤)의 『동정고려기(東征高麗記)』는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인이 지은 한반도 관련 저작 가운데 가장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는 정사 속의 기록보다 훨씬 늦게 등장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졌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이뤄진 명청시대 사행록 연구를 통해 16~19세기 중국에서 편성된 조선 관련 서적이 상당한 양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²⁾ 그러나 아직까지 전근대 중국인이 지은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조사된 바 없다. 다만 한중 양국 학계에서는 모두 중국 사신이 조선을 다녀온 후 남긴 사행록이나 중국에서 편찬된 조선 시문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진 사실을 통해 전근대 중국인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³⁾

비록 사행록이나 시선집 관련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지만 역대 중국에서 편찬된 한반도에 관한 전문 저서를 수집, 분석, 고찰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에서 중국 내 한국학 연구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한중 양국이 수교를 시작한 1992년부터 거론하는데 그전에, 특히 고대 중국에서 태동한 한국학 관련 역사적 성과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⁴⁾ 이는 역시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

2) 중국 사신의 사행록 관련 연구는 皇華集연구와 개인의 사행록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황화집 관련 연구로는 신태영, 『『皇華集』 研究: 文學의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金秀旻, 『朝鮮—明“賦詩外交”中的用“詩”—以『皇華集』爲中心—』, 『中國學論叢』, 2013, 97~215면; 파오춘세, 『韓中 文人들의 唱和詩에 나타난 箕子 認識의 展開』, 『皇華集』 所載 作品을 對象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楊昕, 『明代中朝使臣戴異國的文化認知與體察初探—以“皇華集”與“朝天錄”爲中心』, 『東疆學刊』, 2022, 74~81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행록 연구로는 소중, 『명나라 사신 龔用卿의 조선사행 연구』, 『역사문화논총』 6, 2010, 53~107면; 이남중, 『張寧『奉使錄』詩文研究』, 『중국학보』 73, 2015, 83~127면; 이성형, 『『使朝鮮錄』에 나타난 明使臣의 朝鮮 認識』, 『열상고전연구』 80, 2023, 439~470면; 陳喬宇, 『倪謙及『遼海編』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 2023, 7~14면 등이 있다.

3) 중국에서 편찬된 조선 시선집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현규,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 시선집 연구』, 서울: 태학사, 1998; 이종목,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한국문화』 45, 2009, 15~49면 등이 있다.

4) 김운태, 『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中國研究』 38, 2006, 77~91면; 예성호, 『중국의 한국학 지식지도 연구: 1992년-2016년 경제·경영 분야의 학술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 『중국학연구』 90, 2019, 257~288면; 石源華, 『中韓建交二十年來中國韓國學現狀及發展』, 『當代韓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사실 조선 후기 중국에서 축적된 한반도 관련 기술(記述)을 주목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인이 지은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은 것으로 보인다.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화인기동사(華人記東事)>, 사학자 한치윤(韓致堧, 1765~1814)의 <동국기사(東國記事)> 그리고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중원기동사(中原記東事)>는 모두 고대 중국에서 편찬된 한반도에 대한 전문 저서를 모은 서목(書目)이다. 이러한 서목은 곧 고대 중국에서 이룬 한반도 연구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아직까지 상술 세 가지 서목을 주목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보고는 중국 내 한국학의 역사적 전개와 같은 큰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자료로 이덕무, 한치윤 그리고 이규경이 작성한 서목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들 서목의 수록 내용과 편찬 방식을 고찰한 후 서목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서목에 구현된 조선 지식인의 자타인식이 중국의 한국학 성립과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II. 조선에서 편찬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

조선 후기 편찬된 서목 가운데 특별히 역대 중국인이 쓴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를 모은 서목들이 있다. 이덕무의 <화인기동사>, 한치윤의 <동국기사>, 이규경의 <중원기동사>가 대표적이다. 우선 이러한 서목들을 총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동국기사’는 간결하지만 서적 편찬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조선인이 쓴 자국에 대한 전문 저술로 오인 받을 여지가 있다. ‘화인기동사’와 ‘중원인기동사’는 ‘중국인이 기록한 동국의 일’이라는 뜻으로 수록한 서목들의 편찬 주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하지

國], 2012, 12~16면; 張美紅·胡靜, 「中國韓國學研究現狀及發展分析——以『復印報刊資料』(2011—2016)轉載來源刊爲例」, 『甘肅社會科學』, 2018, 119~125면 등 연구에서 중국내 한국학 연구 상황을 논의할 때 대부분 1992년 이후의 연구부터 고찰하였다.

만 '화인(華人)' 또는 '중원(中原)'과 같은 단어 표현에서 민족성과 지역성이 제한을 받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서목을 명명하는 총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고대 중국에서 '화인'을 '한족(漢族)'과 같은 말로 사용한 경우가 많고, '중원(中原)'을 황하 유역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국인이 쓴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를 지칭할 때는 '화인'이나 '중원'보다 '중국'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서목의 명칭으로는 목적어로 사용되는 명사형 어휘 '동국기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동사형 어휘 '기동사(記東事)'보다 적합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목을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으로 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수록한 중국인이 쓴 한반도에 대한 전문 저술도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임을 밝힌다.

1. 이덕무의 <화인기동사>와 이규경의 <중원기동사>

먼저, 이덕무가 작성한 서목 <화인기동사>의 서적 수록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 서목은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60, <양엽기(盎葉記)> 7에 수록되어 있다. 글 제목에 이어 바로 서목과 관련 정보를 편찬 시대순으로 나열하였다. 서명과 저자 성명을 위주로 기록하였으며 간혹 주문(注文) 형식으로 삽입된 서적 편찬 배경이나 주요 내용에 관한 기술도 보인다. 당나라 때의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부터 시작하여 명나라 때의 『봉사록(奉使錄)』까지 수록하였는데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靑莊館全書』의 『華人記東事』에 수록한 서적

시대	서목	합계
唐代	『奉使高麗記』, 裴矩의 『高麗風俗記』, 顧愔의 『新羅國記』, 張建章 ⁵⁾ 의 『渤海國記』, 曾 ⁶⁾ 顔의 『渤海行年紀』,	5
宋代	『鷄林類事』, 王雲의 『鷄林志』, 章僚의 『海外使程廣記』, 徐兢의 『高麗圖經』, 吳拭의 『鷄林志』, 王雲의 『鷄林志』, 孫穆의 『鷄林類事』,	7
元代	(고려)高得相의 『海東三國通曆』,	1
明代	沈恣의 『海東三國史記』, 宋應昌의 『朝鮮復國經略』, 蕭應宮의 『朝鮮征倭紀略』, 倪謙의 『朝鮮紀事』, 『奉使錄』, 錢溥의 『朝鮮雜誌』, 龔用卿의 『使朝鮮錄』, 魏禮의 『寧都先賢傳』, 董越의 『使東日錄』, 錢謙益의 『列朝詩集』, 吳明濟의 『高麗世紀』	11

이덕무의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 <화인기동사>에는 총 24종 서적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와 왕운(王雲)의 『계림지(鷄林志)』를 중복 기록하였으므로 사실 22종 서적을 수록한 셈이다. <화인기동사>에 기록한 서목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서목을 수록한 원전, 서명, 권수, 편찬자와 같은 네 가지 정보를 기록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그 첫 번째 서목에 대한 기록은 아래 인용문(1)과 같다. 그리고 다른 기록 형태는 서명, 권수, 편찬자와 같은 세 가지 정보만 기록한 경우인데 아래 인용문(2)과 같다. 앞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일부 서적에 대해 그 편찬 배경, 주요 내용, 편찬자 등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아래 인용문(3)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 (1) 『당서(唐書)·예문지(藝文志)』에 실려 있는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 1권은 지은 이를 알 수 없다.⁷⁾
- (2) 『고려풍속(高麗風俗)』 1권은 배구(裴矩)가 찬한 것이다.⁸⁾
- (3) 『해외사정광기(海外使程廣記)』 3권에 대해서는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남당(南唐)의 여경사(如京使) 장요(章僚)가 편찬하였는데, 그가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기록한海道(海道)와 산천(山川)·사적(事蹟)·물산(物産) 등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사허백(史虛白)이 거기에 서문을 지으면서 ‘기미(己未) 시월(十月)이라 하였으니 아마 본조가 개국(開國)하기 1년 전인 듯하다’ 하였다.”⁹⁾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은 조부의 <화인기동사>를 계승하여 <중원기동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문집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같은 서목을 수록하였다. 두 서목을 비교한 결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이규경의 <중원기동사>의 서두에는 “평소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5) 『靑莊館全書』 권60 (『한국문집총간』 259), 69면에 있는 원문 오기 ‘封’을 ‘章’으로 수정하였다.

6) 『靑莊館全書』 권60 (『한국문집총간』 259), 69면에 있는 원문 오기 ‘僧’을 ‘曾’으로 수정하였다.

7) “『唐·藝文志』載『奉使高麗記』一卷，亡名氏。”(『靑莊館全書』 권60, 『叢葉記』 7, <華人記東事>)

8) “『高麗風俗』一卷，裴矩撰。”(『靑莊館全書』 권60, 『叢葉記』 7, <華人記東事>)

9) “『海外事程廣記』三卷，陳氏曰：『南唐如京使章僚撰，使高麗所記海道及其山川·事蹟·物産甚詳。史虛白作序，稱己未十月。蓋本朝開國前一年也。』”(『靑莊館全書』 권60, 『叢葉記』 7, <華人記東事>)

방식으로 이러한 서목을 작성하였다”¹⁰⁾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편미에서 “이상의 것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로써 서목을 갖출다”¹¹⁾와 같은 서술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규경의 서목에는 원나라 때 왕약(王約)이 지은 『고려지(高麗志)』를 추가하였으므로 총 25종 서적을 수록하였다.

한편, 이덕무의 <화인기동사>와 이규경의 <중원기동사> 속의 서목을 뒤에서 살펴계 될 한치윤의 <동국기사> 속의 서목과 비교하면 대부분 서목이 <동국기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동국기사>에 수록되지 않은 서적도 있다. 고려 고득상(高得相)의 『해동삼국통력(海東三國通曆)』¹²⁾, 심문(沈忞)의 저서로 기록된 『해동삼국사기(海東三國史記)』¹³⁾, 위예(魏禮)의 『영도선현전(寧都先賢傳)』, 전겸익(錢謙益)의 『열조시집(列朝詩集)』 등은 이덕무·이규경의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수록되어 있으나 한치윤의 서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목의 서적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덕무는 중국에서 유통한 한반도 서적을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으로 보고 있었기에 고득상의 『해동삼국통력』과 심문의 저서로 오인 받은 김부식(金富軾)의 『(해동)삼국사기』도 수록했던 것이다.

그리고 『영도선현전』과 『열조시집』을 수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저서 속의 조선 관련 기사의 가치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덕무가 두 저서에 기재된 조선 관련 기사들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중국의 조선 관련 자료로 보고 있었기에 두 저서도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수록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규경도 역시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영도선현전』과 『열조시집』을 <중원기동사>에 수록하였다. 『영도선현전』은 사실 독립적인 저술이 아니라 청나라 위예(魏禮, 1628~1693)의 『위계자

10) “中原人紀東國事者，亦不可略。故撮其見聞而記之。”(『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4, 『史籍類』 1, <史籍總說·中原記東事>)
 11) “此中原人之所紀我東事者也，以備書目。”(『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4, 『史籍類』 1, <史籍總說·中原記東事>)
 12) “『海東三國通曆』十二卷。高麗高得相撰，繫以中朝歷代正朔。”(『靑莊館全書』 권60, 『叢葉記』 7, 『華人記東事』)
 13) “『海東三國史記』五十卷。淳熙元年五月二十九日，明州進士沈忞，上『海東三國史記』，賜銀帶，付祕閣。按『玉海』，又別載『三國史記』五十卷，高麗金富軾撰。首載新羅，次高句麗，次百濟，有紀表。蓋王氏不辨『海東三國史記』，『三國史記』，本自一書。錯認『海東三國史記』爲沈忞所撰也。”(『靑莊館全書』 권60, 『叢葉記』 7, 『華人記東事』)

시문집(魏季子文集)에 실린 글이다.¹⁴⁾ 이 글은 동월(董越)의 문집 『규봉문집(圭峯文集)』과 그의 『사동일록(使東日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사동일록』 속의 조선에 관한 일부 시문도 인용하였다.¹⁵⁾ 그리고 『열조시집』은 명말 청초의 대문호 전겸익(錢謙益)이 편찬한 시집인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42인의 143제 171수 한시 작품을 수록하였다.¹⁶⁾ 이덕무와 이규경의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은 한치윤의 <동국기사>에 비해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2. 한치윤의 『동국기사』

조선 후기 사학자 한치윤이 편찬한 『해동역사』 속에 18권으로 구성된 「예문지(藝文志)」가 들어있다. 이 「예문지」에는 조선의 서적은 물론 중국의 서적도 함께 수록하였다. 중국 서적을 수록한 부분에는 경사자집(經史子集) 네 가지 항목과 병행하는 또 다른 독립된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동국기사’라고 명명한 부분이다. 이 <동국기사>에는 중국에서 편찬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등 역대 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전문 서적을 모았다. 이것은 조선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치윤의 <동국기사>에는 서진(西晉) 때 최이의 『동정고려기』부터 시작하여 청나라 때 손치미(孫致彌)의 『조선채풍록(朝鮮採風錄)』까지 총 58종 서적을 수록하였는데 편찬자의 안설(按說)에서 언급한 서적까지 계산하면 총 59종에 이른다. 대개 시대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저술자와 서명 외에 기타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사실 『해동역사』 전서에서 독특한 정보 채록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국기사>에 수록한 서적마다 그 관련 정보의 유형도 많은 차이가 난다. 『해동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520여종 문헌 속에서 조선과 관련된 기사를 채록하여 다시 편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역사서이다. 즉 편찬자의 안설을 제외하면 모든 내용이 전부 채록 대상으로 삼은 문헌에서 뽑은 것이

14) 이종목,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5)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60, 『盡業記』 4, <董圭峯>.

16) 김려화, 「『해동역사(海東譯史)』를 통해 본 조선 사학자의 전겸익(錢謙益) 수용 양상」, 『국문학연구』 44, 2021, 385~422면.

다. <동국기사>도 이러한 편찬 방식에 따라 편성되었으니 그 속에 수록된 서목과 그 서목에 관한 기사들이 모두 중국 서적에서 채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국기사> 속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목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4) 최이(崔頤)의 『동정고려기(東征高麗記)』: 수(隋)나라의 최이가 기거사인(起居舍人)이 되어 대업(大業) 연간에 조서를 받들어 『동정고려기』를 지었다. (『책부원귀(冊府元龜)』¹⁷⁾
- (5) 위충(韋沖)의 『경략고려문(經略高麗文)』: 정관(貞觀) 18년 7월에 황제가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여 사람을 뽑아 군량을 운반하게 하였다. 마주(馬周)가 위정(韋挺)을 천거하여 하북궤운사(河北饋運使)로 삼았다. 위정이 자신의 아버지인 위충이 수나라 때 남겨 놓은 『경략고려(經略高麗)』가 있기에 황제에게 올렸다. 이에 황제가 몹시 기뻐하였다. (『구당서(舊唐書)』¹⁸⁾

인용문(4)은 『책부원귀』에서 뽑은 것인데 수나라 기거사인(起居舍人) 최이가 명을 받아 『동정고려기』를 썼다는 내용이다. 즉 『동정고려기』의 편찬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인용문(5)은 『구당서』에서 채록한 것이다. 위정이 궤운사가 되면서 아버지의 저술을 당태종(唐太宗)에게 올렸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 위충의 『경략고려문』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채록 대상이 된 문헌에 기록한 내용에 따라 <동국기사>에 수록한 서적들의 관련 정보도 다르다. 일정한 내용 체계에 따라 기술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적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인용문(4)(5)처럼 한두 구절로 구성된 간략한 기사도 있지만 천자 넘는 기사가 따른 서목도 있다.

<동국기사>의 정보원이 되어주는 중국 문헌으로는 『책부원귀』, 『구당서』, 『신당서(新唐書)』, 『통지(通志)』, 『문헌통고(文獻通考)』, 『연변로속집(演繁

17) “崔頤『東征高麗記』，隋崔頤爲起居舍人，大業中，奉詔作『東征高麗記』。(『冊府元龜』)”(『海東經史』 권45, 『藝文志』 4, 『經籍』 4, <中國書目 2>, <東國記事>.)

18) “韋沖『經略高麗文』。貞觀十八年秋七月，帝將征高麗，將擇人運糧，馬周薦韋挺爲河北饋運使，挺以父沖在隋時有『經略高麗』遺文，因此奏之，帝甚悅。(『舊唐書』)”(『海東經史』 권45, 『藝文志』 4, 『經籍』 4, <中國書目 2>, <東國記事>.)

露續集), 『손공담포(孫公談圃)], 『송사(宋史)], 『옥해(玉海)], 『고려도경(高麗圖經)], 『청파잡지(淸波雜志)], 『진천집(震川集)],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절강서목(浙江書目)], 『수초당서목(遂初堂書目)],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중주집(中州集)], 『원사(元史)], 『만성통보(萬姓統譜)], 『세선당장서목록(世善堂藏書目錄)], 『명사(明史)], 『영도선현전], 『열조시집], 『명시종(明詩綜)], 『소한산자집(小寒山子集)], 『용성시화(榕城詩話)], 『어양시화(漁洋詩話)]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한치윤이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 초기까지의 서적을 기반으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동국기사>에 수록한 서목들의 편찬 시기를 조사하여 시대별로 분류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海東釋史』의 「東國記事」에 수록한 서적

시대	서목	합계
隋代	崔頤의 『東征高麗記』	1
唐代	韋沖의 『經略高麗文』, 裴矩의 『高麗風俗記』, 顧愔의 『新羅國記』, 令狐澄의 『新羅國記』, 『奉使高麗記』 ¹⁹⁾ , 王宗禹의 『渤海軍司圖』, 曾顏의 『渤海行年記』, 張建章의 『渤海國記』	8
五代·南唐	章僚의 『海外使程廣記』	1
宋代	『奉使高麗故實』, 呂祐之의 『海外覃皇澤詩』, 宋球의 『高麗圖紀』, 元豐 연간의 『高麗入貢儀式條令』, 元豐 연간의 『高麗女卓排辨式』, 孫穆의 『鷄林類事』, 吳拭의 『鷄林志』, 王雲의 『鷄林志』,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과 『奉使高麗記』, 『使高麗事纂』, 『宣和接送高麗勅令格式』, 『宣和奉使高麗勅令格式』, 『高麗勅令例儀範坐圖』, 『高麗表章』, 『高麗行程錄』, 楊應誠의 『建炎假道高麗錄』, 翁夢得的 『新羅國記』, (金나라) 閻子秀의 『鴨江日記』	19
元代	王約의 『高麗志』, 宋无의 『鯨背吟集』	2
明代	鄧鍾의 『高麗圖記』, 倪謙의 『朝鮮紀事』과 『遼海編』, 錢溥의 『朝鮮雜志』, 張寧의 『奉使錄』, 董越의 『朝鮮賦』와 『使東日錄』 그리고 『朝鮮雜志』, 龔用卿의 『使朝鮮錄』, 黃洪憲의 『朝鮮國記』, 魏時亮의 『遼東事宜』, 鄭若曾의 『朝鮮圖說』, 宋應昌의 『朝鮮復國經略』과 『經略復國要編』, 蕭應宮의 『朝鮮征倭紀略』, 茅瑞徵의 『萬曆三大征攷』, 王士琦의 『封貢記略』, 諸葛元聲의 『兩朝平壤錄』, 侯繼國的 『兩浙兵制』, 黃侯卿의 『倭患考原』, 王士驥의 『馭倭錄』, 吳明濟의 『高麗世紀』, 朱之蕃의 『奉使朝鮮藁』, 鄧少卿의 『奉使詩艸』, 張廷枚의 『奉使高麗紀事詩』, 焦竑의 『朝鮮詩選』, 吳明濟의 『朝鮮詩選』.	27
清代	孫致彌의 『朝鮮採風錄』	1

<동국기사>에 수록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 가운데 송대와 명대의 서적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반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송나라 때부터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신 왕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사신들이 기록하고 전한 한반도의 건문은 중국 지식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반도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확충시켰다.

III.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의 특징

앞서 조선 후기 지식인이 편찬한 세 가지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의 기본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수록한 서적 종류와 서목이 속하는 기술 체계에 드러난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에서 편찬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의 학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1. 다양한 문헌 종류

앞서 살펴본 조선 후기에 편찬된 세 가지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는 모두 다양한 사찬(私撰) 문헌을 수록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편찬자들이 대부분 한반도를 다녀간 중국 사신이었으므로 이들의 저서를 모두 사행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사행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 가운데 사행록이 아닌 저서도 있다. 또한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이 쓴 저서를 전부 사행록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 중 몇몇 사람이 사신의 신분으로 조선을 다녀갔지만, 그들이 남긴 한반도 관련 저서는 사행록 성격이 아닌 것도 있다. 그리고 사신의 신분을 전제로 그들이 편찬한 한반도 관련 서적을 두루뭉술하게 사행록으로 보게 되

19) 『해동역사』 권45의 『奉使高麗記』條에 대한 안설을 통해 鄭樵의 『通志』 『藝文略』에서 이 책을 顧愷의 『新羅國記』 뒤에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新唐書』 권84 『藝文』 2 『地理類』에 “『奉使高麗記』一卷을 裴矩(547~627)의 『高麗風俗記』 앞에 수록하였다. 이에 『봉사고려기』는 대략 수나라 시대부터 당나라 초기까지의 저서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면 일부 서적의 내용적 특징을 놓치게 되기 마련이다. 오히려 사신이라는 편찬자의 신분을 참고하되, ‘사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들이 편찬한 서적을 면밀하게 구분하여야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의 다양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편찬 배경과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화인기동사>, <중원기동사>와 <동국기사>에 수록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들을 대개 여섯 가지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역사, 문화, 정치, 풍속, 지리, 군사 등에 대해 두루 기술하는 전문 저서들이다. 중국에서 나온 타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저서들은 일반적으로 나라별로 구분하여 기록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명은 ‘국가명/지역명+국기(國記)’와 같은 형태를 채용하였거나 국기의 ‘국(國)’ 자가 생략된 경우도 많다.²⁰⁾ 일부 서적에서는 ‘국기’나 ‘기’ 대신 ‘풍속기(風俗記)’, ‘유사(類事)’, ‘지(志)’, ‘잡지(雜志)’로 명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기타 동국기사류 서적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종류에 속한 서적을 ‘한반도 국기’로 지칭하겠다. 당나라 배구(裴矩)의 『고려풍속기(高麗風俗記)』(일명 『고려풍속』), 고음(顧愔)의 『신라국기(新羅國記)』, 장건장(張建章)의 『발해국기(渤海國記)』(일명 『발해기』), 송나라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 오식(吳拭)의 『계림지(鷄林志)』, 왕운(王雲)의 『계림지』, 명나라 황홍헌(黃洪憲)의 『조선국기(朝鮮國記)』 등이 모두 한반도 국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국기들의 편찬 목적은 한반도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이웃나라에 대한 일종의 백과서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편찬 목적이 ‘정보 소개’를 넘어 ‘대의 정책수행을 위한 유효한 정보 제공’에 있다. 일례로 배구가 쓴 『고려풍속기』는 서명만 전하고 있지만 관련 기록과 연구를 통해 지리, 풍속, 군사 정보가 주된 내용이며 전쟁 목적의 저술인 것을 알 수 있다.²¹⁾ 단순히 타국 상황을 소개하는 일반 서적이 아니라 당나라의 대외적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서적으로 편성되었으니 『고려풍

20) 고미야 히데타카, 『한국 고대국가의 국기(國記)에 대하여—편찬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0, 2015, 99~124면.

21) 이정빈의 『『고려풍속』과 『고려기』—수·당의 고구려 탐방과 7세기 동아시아—』(『先史와 古代』 67, 2021, 57~84면)에서는 배구가 쓴 『고려풍속기』를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책이라고 하였다.

속기』는 당시에는 일종의 대외군사 참고서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의 내용도 점차 시효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고려풍속기』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록(行程錄)·견문록(見聞錄)에 속한 서적들이다. 편찬자가 사신으로 조선에 오가는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정리한 것인데 전형적인 사행록이다. 이러한 사행록의 제목에는 대부분 '봉사(奉使)', '사행(使行)', '사(使)'와 같은 편찬자의 사신 신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장료(章僚)의 『해외사정광기(海外使程廣記)』, 예겸(倪謙)의 『조선기사(朝鮮紀事)』, 동월(董越)의 『사동일록(使東日錄)』, 주지번(朱之蕃)의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 장녕(張寧)의 『봉사록(奉使錄)』, 공용경(龔用卿)의 『봉사조선록(奉使朝鮮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정록·견문록에도 한반도의 역사, 문화, 정치, 풍속, 지리, 군사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종류인 한반도 국기에 비하여 그 내용 서술이 편찬 주체의 특질에 치중한다는 특징이 보인다. 대부분 편찬자의 노정에 따라 기록되어 있으며 편찬자의 이동 경로, 느낌, 글을 짓는 재량 등이 서술 과정에서 크게 작용되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전제(典製)와 관련한 저서들이다. 『고려입공의식조령(高麗入貢儀式條令)』, 『고려여탁배변식(高麗女卓排辨式)』, 『선화접송고려칙령격식(宣和接送高麗勅令格式)』, 『선화봉사고려칙령격식(宣和奉使高麗勅令格式)』, 『고려칙령예의범좌도(高麗勅令例儀範坐圖)』, 『고려표장(高麗表章)』 등이 그것이다.

네 번째는 전쟁 과정에서 기록하거나 전쟁이나 충돌을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정리해 놓은 군사지기(軍事志記)이다. 최이의 『동정고려기』, 송응창(宋應昌)의 『조선복국경략(朝鮮復國經略)』, 소응궁(蕭應宮)의 『조선정왜기략(朝鮮征倭紀略)』,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정약중(鄭若曾)의 『조선도설(朝鮮圖說)』 등이 모두 군사지기이다.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수록한 군사지기는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 많다. 송응창의 『조선복국경략』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책에 임진왜란 초기 명군(明軍)의 참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략(經略) 직에 있던 송응창이 작성한 상소문, 편지 등도 함께 실려 있다.

다섯 번째는 시문집이다.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는 중국인이 지은 조선에 관한 시문집, 한중 양국 문인의 시문을 함께 수록한 시문집, 중국인이 편찬한 조선 시문집과 같은 세 가지 시문집을 수록하였다. 중국인이 지은 조선에 관한 시문집으로는 여우지(呂祐之)의 『해외담황택시(海外覃皇澤詩)』, 송무(宋無)의 『경배음집(鯨背吟集)』,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등이 있다. 한중 양국 문인의 시문을 함께 수록한 것은 예겸의 『요해편(遼海編)』, 동월의 『사동일록(使東日錄)』, 전겸익(錢謙益)의 『열조시집(列朝詩集)』 등이다. 그리고 중국인이 편찬한 조선시문집으로는 초횡(焦竑)의 『조선시선(朝鮮詩選)』, 오명제(吳明濟)의 『조선시선(朝鮮詩選)』, 손치미(孫致彌)의 『조선채풍록(朝鮮採風錄)』이 있다.

여섯 번째는 한반도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이다. 오명제의 『고려세기(高麗世紀)』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유통했던 조선의 역사서도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수록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고려 고득상의 『해동삼국통력』,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이러한 서목에 수록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편찬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사찬 서적만을 수록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대 중국 관찬 서적 가운데 한반도 관련 서술이 삽입된 경우는 많았으나 한반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저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전문 서적은 조정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더라도 개인에 의해 편찬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 지식인들이 개인이 편찬한 서적을 주목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국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국과 관련된 타국의 공적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기록도 역시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자타인식의 민감도에 대한 반영이라면, 이러한 서목을 일정한 체계 속에 배치하는 상황이 그들의 자타인식의 구체적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2. 객관적 기술 체계의 구축

이덕무의 <화인기동사>는 『양엽기』 7에 25번째 글로 수록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엽기』는 ‘소백과사전’으로 평가된 이덕무의 저작으로 그가 일생에 걸쳐 수집한 지식 정보의 집합 결과이다. 『양엽기』에 수록한

글은 주제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1) 역사·인물·사적, (2) 문물·제도·풍속, (3) 글자·어휘 훈고, (4) 천문·자연·현상, (5) 단상·내면 술회, (6) 기타이다.²²⁾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 8권으로 구성한 『양엽기』에서 종류별로 묶어 수록된 것이 아니다. 일정하게 항목화된 체계 없이 편찬자가 임의대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역사서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화인지동사>가 속하는 역사서술 체계를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양엽기』 속의 서목과 관련된 항목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 ① 『양엽기』 1, 29번째 글, <東國史>: 조선의 史書 목록을 정리한 글
- ② 『양엽기』 2, 27번째 글, <箕子朝鮮世系>:箕子 역사 자료에 관한 글
- ③ 『양엽기』 2, 50번째 글, <中國書來東國>: 조선으로 유입한 중국 책을 정리한 글
- ④ 『양엽기』 6, 37번째 글, <東國書入日本>: 일본으로 유입한 조선 책을 정리한 글
- ⑤ 『양엽기』 7, 25번째 글, <華人記東事>: 중국인이 편찬한 조선 관련 책을 정리한 글

상기 추려낸 서목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조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①번과 ②번은 조선의 역사서 목록이고 ③번과 ④번은 조선의 수입 책과 수출 책의 목록이다. 그리고 ⑤번은 조선 밖에서 조선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자국 조선을 중심에 두어 만든 목록들이며 모두 조선 중심적인 역사서술이다. 조선 중심적 사고가 목록을 통해 반영된 것인데 그 목록들이 오로지 자국의 서적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타국과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서적도 정리해두었다. 이렇듯 ⑤번 <화인지동사>는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모은 것이지만 사실 조선 중심적인 기술 체계를 구성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 체계에 입각하여 다시 <화인지동사>를 보면, 이것이 중국의 조선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또는 조선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목록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식정보의 수집과 정리하는 것이 이 글을 작성했던 1차적인 목적

22) 강진선, 『『叢葉記』의 지식 정보 편집 양상과 그 저술 의식』, 『大東漢文學』 70, 2022, 5~39면.

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양엽기』에 산재된 서목 관련 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면 정보의 수집과 차원이 다른 시각에서 <화인기동사>에 드러난 이덕무의 역사서술 의식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치윤이 『해동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덕무의 저술을 중요하게 참고하였고 일부 자료를 재인용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이다.²³⁾ 그렇다면 한치윤은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만들기 위한 발상을 이덕무의 저술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비교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한치윤이 작성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는 이덕무가 작성한 서목을 대부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자의 두 배가 되는 서적을 수록하였다. 즉 『해동역사』와 이덕무 저서와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면 한치윤의 <동국기사>는 이덕무의 <화인기동사>를 발전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치윤의 <동국기사>가 속하는 기술 체계를 보면 앞서 언급한 조선 중심적인 기술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동역사』의 『예문지』에는 또 경적(經籍), 서법(書法), 비각(碑刻), 화(畫), 본국시(本國詩), 중국시(中國詩), 본국문(本國文), 중국문(中國文), 잡철(雜綴)과 같이 9개 부류(部類)를 배열하였다. 이 중 경적 부류에는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따라 본국의 서목과 중국의 서목을 경사자집(經史子集) 4개의 자목(子目)으로 나누어 관련 서적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중국 서목의 다섯 번째 서목으로는 『동국기사』를 수록하였다. 경사자집과 병립하여 설정한 서목으로 상당히 눈에 띈다. 이러한 항목 설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海東繹史·藝文志』의 기술 체계

『藝文志』의 經籍 部類 순번	類目	子目				
		經	史	子	集	--
經籍1-2	本國書	經	史	子	集	--
經籍3-4	中國書	經	史	子	集	東國記事

『해동역사·예문지』의 분류 층위는 ‘부류(部類)>유목(類目)>자목(子目)’과 같이 3단계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3단계 층위 구조에서 ‘경적’은

23) 김려화, 『한치윤의 교유관계와 『해동역사』의 편찬배경』, 『한국학논집』 81, 2020, 285~320면.

부류 층위에 있고 '본국서'와 '중국서'는 유목 층위에 있으며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인 '동국기사'는 자목 층위에 있다. 이러한 구조 설정에서도 역시 조선 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난다. 우선, 서적을 수록하는 경적 부류에서 '본국서'를 '중국서' 앞에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일반적인 '사부분류법'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동국기사'라는 자목을 설정하였다. 이 두 가지 편찬 방식을 통해 조선 서적과 조선 관련 전문 서적을 경적의 기술 체계에서 대상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설정하였다. 이는 조선 중심적인 사고가 작용한 결과이다. 조선을 중심으로 한 역사 기술 체계에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과 같은 기술 내용을 삽입한 것은 조선의 역사서술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규경의 활동 시기는 한치윤보다 약 반세기 정도 늦다. 비록 그가 작성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 <중원기동사>는 조부 이덕무의 서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지만 이 글이 속하는 기술 체계를 통해 그의 고심이 보인다. 이규경의 저술 『오주연문장전산고』는 크게 '천지편(天地篇)', '인사편(人事篇)', '경사편(經史篇)', '만물편(萬物篇)', '시문편(詩文篇)'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경사편'은 다시 '경전류(經傳類)', '도장류(道藏類)', '석전류(釋典類)', '사적류(史籍類)', '경사잡류(經史雜類)', '논사류(論史類)'와 같이 여섯 부류로 분류하였다. 이 중 '사적류'는 '사적총설(史籍總說)'과 '사적잡설(史籍雜說)'로 나누어 각각 2편과 10편의 변증설(辨證說)을 수록하였다. 이규경은 고증학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와 같은 치학(治學)의 방법적 특징은 '변증설'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²⁴⁾ '사적총설'에 수록한 변증설과 그 아래 층위에 수록한 글은 다음 표<4>와 같다.

24)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표<4> 『五洲衍文長箋散稿』 속 經史篇·史籍類·史籍總說의 기술 체계

經史篇·史籍類	辨證說	篇名
史籍總說	(1) 二十三代史及東國正史辨證說	① 序說
		② 二十三代史
		③ 東國正史
	(2) 古史·通史·通鑑綱目·諸家史類·史論·中原記東事·東國諸家史類辨證說	① 古史
		② 通史
		③ 通鑑·通鑑綱目
		④ 諸家史類
		⑤ 史論
		⑥ 中原記東事
		⑦ 東國諸家史類
		⑧ 外國史

표<4>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적총설’에 수록한 두 가지 변증설은 모두 역사서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십삼대 정사와 동국 정사 변증설(二十三代史及東國正史辨證說)>은 세 편의 글로 구성하였다. 주로 중국의 정사 23부와 조선의 정사 2부에 대해 기록하였다. 두 번째 <고사, 통사, 통감강목, 제가사류, 사로, 증원기동사, 동국제가사류 변증설(古史·通史·通鑑綱目·諸家史類·史論·中原記東事·東國諸家史類辨證說)>에는 총 8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정사외의 역사서를 여덟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①<고사(古史)>, ②<통사(通史)>, ④<제가사류(諸家史類)>에는 중국 서적만 기록하였다. ③<통감과 통감강목>과 ⑤<사론(史論)>에서는 조선의 서적도 같이 언급하였다. 양국의 서적을 모두 기록한 경우, 중국 서적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서적을 기록하였다. 이어 ⑥<증원기동사>에는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수록하였다. ⑦<동국제가사류(東國諸家史類)>와 ⑧<외국사(外國史)>에는 오로지 조선의 역사서만 수록하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①②④번은 중국의 역사서, ③번과 ⑤번은 중국과 조선의 역사서, ⑥번은 중국의 조선 관련 서적, ⑦⑧번은 조선의 역사서와 같은 배치이다. ①번부터 ⑧번까지는 중국과 조선의 정사가 아닌 역사서를 모은 것인데 그 앞에 수록한 <이십삼대 정사와 동국 정사 변증설>의 ①번부터

③번까지의 글과 함께 '중국과 조선의 사적(史籍)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즉 이규경은 '사적총설'에서 중국과 조선의 역사 서적을 통해 일종의 고대 한자문화권의 사적 체계를 구축시켰다. 그가 지향하는 고대 한자문화권의 중심에는 중국과 조선이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역시 조선 중심적인 사고가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규경은 중국 역사 서적과 조선 역사 서적을 대상으로 한 사적 기술 체계를 만들면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인 <중원기동사>를 통해 양국의 역사 서술의 긴밀성도 보여주고 있었다. <중원기동사>는 중국의 역사서술과 조선의 역사 서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양국의 역사 서적으로 구성된 사적 기술 체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선을 중심에 두어 역사 서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원기동사>와 같은 서목을 작성하는 것이 지식 정보의 수집과 분류 목적을 넘어 조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구축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

IV. 타자인식과 한국학 연원 —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조선 후기 지식인이 편찬한 세 개의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일전에 중국 학계에서 '외국지기(外國志記)'라는 용어로 고대 '서역(西域)', '서양(西洋)', '이역(異域)', '제번(諸蕃)', '번국(蕃國)', '해외(海外)' 등 지역에 대해 기록한 전문 서적을 지칭한 바 있다. '외국지기'는 중세기 중국인이 타국 및 타지역에 대한 지식 축적의 결과물로 중국 고대 지식인들의 타자인식을 구현하는 글쓰기 방식 중의 하나로 보았다.²⁵⁾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들이 중세기 중국의 외국지기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고려'나 '조선'으로 지칭해왔듯이 한반도를 기술대상으로 삼은 '외국지기'를 '조선지기(朝鮮志記)' 혹은 '고려지기(高麗志記)'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다. 중국 학계에는 '조선지기'나 '고려지기'가 더 적합한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이라는 명칭은 선학의 사상

25) 王向遠, 『中國古代“外國志記”與亞洲視域之形成』, 『江西社會科學』, 2021(4), 108~117면.

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의 자타의식을 뚜렷하게 나타낸 명칭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시론으로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이라고 하였다.

이덕무의 <화인기동사>, 한치윤의 <동국기사>, 이규경의 <중원기동사>에는 역대 중국 지식인들이 편찬한 한반도 관련 전문 저서를 수록하였다. 이덕무의 <화인기동사>는 22종 서적을 수록하였고 한치윤의 <동국기사>는 59종 서적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서목에 수록한 문헌을 다시 세분하면 한반도 국기, 행정록·건문록, 한반도 전제 관련 저서, 군사지기, 시문집, 역사서 등의 종류가 확인된다. 이덕무와 한치윤이 작성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는 조선 중심적인 서술을 통해 객관화 기술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러한 특징이 이규경의 서목에서도 확인되었다. 그의 <중원기동사>에는 23종 서적을 수록하였으며 이덕무의 서목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 체계 측면에서 볼 때 <중원기동사>는 중국과 조선이 함께 중심에 있는 ‘사적 기술 체계’에 속하며 조선을 객관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제 이러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의 학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차례이다. 우선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자타인식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본다. 이러한 서목에는 역대 중국인이 쓴 한반도에 대한 전문 저서를 모았다. 이러한 저서들은 중국의 조선인식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서목을 작성한 동기는 조선 지식인들의 강렬한 자타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조선에 대해 어떻게 기록해왔는지, 그러한 기록 역사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작업 수행은 조선 지식인들의 자의식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 지식인들이 타자를 통해 자아를 재인식하고 자의식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작성하였다. 타자의 관련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목록화,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또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켰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도 확인할 수 있다. 서목의 중복이나 인명, 서명의 오기가 있다. 그리고 서적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타 문헌의 관

런 기사를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서목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관련 고증작업이 부실한 면도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누락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시대적 제한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작성한 서목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 대한 보충 작업이 진행된다면, 특히 청나라 지식인들의 조선 관련 저서를 수집하여 보충한다면 중국의 조선 인식, 중국의 한국학 관련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을 중국의 한국학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중국의 한국학 연원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학'은 현대 학술적 개념으로 한국에 관한 다양한 면의 분야에서 한국 고유의 것을 연구 개발하는 학문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학에는 역사가 있고, 국내와 해외의 두 가지 학술장이 있다. 한국에서 이뤄진 한국학 연구는 '자기 연구' 범주에 속한다. 한국 내지 한반도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 내의 한국학 연구 시야가 다다르기 힘든 깊이나 넓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체성을 지키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편적인 동질성 혹은 가치성을 확보해야 한국학의 세계화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이다. 이에 해외 한국학 자료 및 한국학 연구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작성한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의 또 다른 가치는 바로 해외 한국학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현재 한중 양국 학자들이 중국의 한국학 연구를 논의할 때 대부분 양국이 수교한 1992년을 시점(始點)으로 삼아 그때의 연구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중국의 한국학 성립을 한중 양국의 수교를 배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한국학 성립의 연원은 중국 동국기사류 서목에서 제시한 것처럼 멀리 당나라까지 소급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립도 고대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본고에서 논의된 세 가지 서목의 작성 시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만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파악한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대상으로 삼은 이 세 가지 서목이 편찬

되기 이전에,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중국 동국기사류 서적을 언제부터 어떻게 주목해왔는지, 서목을 만들기 전에 이와 같은 서적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난 질적 변화와 형식적 변화의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더 나아진 논의를 시도할 것을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韓致淵, 『海東釋史』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7-259집, 한국고전종합DB.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종합DB.
歐陽修,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錢謙益, 『列朝詩集』, 北京: 中華書局, 2007.
宋應昌 著, 鄭潔西·張穎 點校, 『朝鮮復國經略』,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20.
鄭樵, 『通志』, 北京: 中華書局, 1995.

2.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中國正史朝鮮傳』,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98.
박현규,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서울: 태학사, 1998.
이종목,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 논문

- 강진선, 『『蟲葉記』의 지식 정보 편집 양상과 그 저술 의식』, 『大東漢文學』 70, 대동한문학회, 2022, 5~39면.
고미야 히데타카, 『한국 고대국가의 국기(國記)에 대하여-편찬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0,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99~124면.
김윤태, 『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中國研究』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6, 77~91면.
김채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려화, 『『해동역사(海東釋史)』를 통해 본 조선 사학자의 전경익(錢謙益) 수용 양상』, 『국문학연구』 44, 국문학회, 2021, 385~422면.
_____, 『한치윤의 교유관계와 『해동역사』의 편찬배경』, 『한국학논집』 8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0, 285~320면.
金秀旻, 『朝鮮-明“賦詩外交”中的用『詩』-以『皇華集』爲中心-』, 『中國學論叢』,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97~215면.
소중, 『명나라 사신 龔用卿의 조선사행 연구』, 『역사문화논총』 6, 역사문화연구소, 2010, 53~107면.

- 신태영, 『『皇華集』 研究: 文學的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예성호, 『중국의 한국학 지식지도 연구: 1992년-2016년 경제·경영 분야의 학술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 『중국학연구』 90, 중국학연구회, 2019, 257~288면.
- 이남중, 『張寧『奉使錄』詩文研究』, 『중국학보』 73, 한국중국학회, 2015, 83~127면.
- 이성형, 『『使朝鮮錄』에 나타난 明使臣의 朝鮮認識』, 『열상고전연구』 80, 열상고전연구회, 2023, 439~470면.
- 이정빈, 『『고려풍속』과 『고려기』-수·당의 고구려 탐방과 7세기 동아시아-』, 『先史와 古代』 67, 한국고대학회, 2021, 57~84면.
- 이종묵, 『17-18세기 中國에 전해진 朝鮮의 漢詩』, 『한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5~49면.
- 파오춘세, 『韓中 文人들의 唱和詩에 나타난 箕子 認識의 展開: 『皇華集』 所載 作品을 對象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陳喬宇, 『倪謙及『遼海編』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 東北師範大學文學院古籍整理研究所, 2023(4), 7~14면.
- 石源華, 『中韓建交二十年來中國韓國學現狀及發展』, 『當代韓國』,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12(3), 12~16면.
- 楊所, 『明代中朝使臣戴異國的文化認知與體察初探-以“皇華集”與“朝天錄”爲中心』, 『東疆學刊』, 延邊大學, 2022(1), 74~81면.
- 張美紅·胡靜, 『中國韓國學研究現狀及發展分析-以『復印報刊資料』(2011-2016)轉載來源刊爲例』, 『甘肅社會科學』, 甘肅省社會科學院, 2018(2), 119~125면.

Compilation of the Chinese *Dongguk Gisa* Book Lists by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Lee Deok-moo, Han Chi-yoon, and Lee Kyu-kyung -

Jin, Lihua

This paper focused on three Chinese *Dongguk Gisa* book lists compiled by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Deok-moo(李德懋)'s *Huaingi Dongsa*(華人記東事), Han Chi-yoon(韓致瀾)'s *Dongguk Gisa*(東國記事) and Lee Kyu-kyung(李圭景)'s *Jungwon Gi Dongsa*(中原記東事) contain specialized books on the Korean Peninsula compiled by Chinese intellectuals. Lee Deok-moo's *Huaingidongsa* contained 22 kinds of books, and Han Chi-yoon's *Dongguk Gisa* collected 59 kinds of books. Lee Kyu-kyung's *Jungwon Gi Dongsa* contained 23 kinds of books and inherited the contents of Lee Deok-moo's books.

Re-segmenting the literature contained in these books identifies the types of Korean Peninsula encyclopedia, administrative records and observations, books related to the instit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oks on the art of war, poetry collections, and history books. And if you look at the narrative system, it can be said that Lee Deok-moo's book list belongs to the Joseon-centered narrative system. Han Chi-yoon and Lee Kyu-kyung's book list showed efforts to objectify their perception of their country in the East Asian Chinese character civilization beyond the Joseon-centered narrative system and can be said to belong to an objective narrative system.

Through these three book lists, it was possible to see the process of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ilding an objective narrative system for their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of Chinese *Dongguk Gisa* book lists written by Joseon intellectuals will be evaluated as valuable data showing their own perception and data that can help us explore the origin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in China.

Keywords: Specialized Document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Huainji Dongsa*
(華人記東事), *Dongguk Gisa*(東國記事), *Jungwon Gi Dongsa*(中原記東
事), Self-Awareness, Korean Studies

접수일자: 2023. 9. 30. 심사기간: 2023.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3. 11. 10.
